

≡ 체험수기 ≡

과학기술 보급받아 자립터전 마련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영통리 신정식 주부

오이 2~3개에 백원씩 토마토 1근에 백원씩 이렇게 날개돌힌듯 팔리고 나면 8~9천원이 제 손에 쥐어집니다. 아침부터 목이 쉼정도로 오이와 토마토를 가득담아 이고 옵니다. 그러나 이제 빈 광주리를 챙겨 시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는 가슴벅찬 기쁨과 줄더 일찍 비닐하우스를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감회가 엇갈립니다. 일찍이 비닐하우스를 시작했더라면... 시집은지 사흘만에 밥지을 쌀이 없어 어쩔줄 모르던 몸서리쳐지는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대폐드리면서 처음 인사한 친척들께 인사로

쌀을 꾸러다닐 수밖에 없었던 새색시의 심정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시집오기전 가난한 집이란 말은 들었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어린 4남매의 동생만 데리고 근근히 살고 있었지요. 논 세마지기여 밭 9백평 그것을 가지고 농사라고 짓고 있었으니 집안 형편은 뻔한 노릇이고 그런 살림살이를 갖 시집은 제가 맡아 꾸러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시집은지 한달쯤 후에는 바가지 들고 쌀꾸러다니기도 민망해서 채 익지도 않은 보리 이삭을 모아다가 솥에 넣고 볶아 맷돌에 갈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눈물의 보리죽이라도 끓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시동생들이 장성하고 혼인을 해서 분가하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으나 고작해야 설달이면 식량이 떨어져 장리쌀을 얻어야만 그나마 자식들과 연명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찌들어 비틀어져버린 고질의 가난속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움츠음쳐 오릅니다.

나에게 이 모든 광명을 안겨준 고마운 사람은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에 근무하는 고평출 교수입니다. 그 분께서 비닐하우스라는 농사법으로써 이맛살을 띄게 해주신 분이였죠. 우리 마을에 농과대학 학생들의 영농실습을 인솔하고 와서 농가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을 도우려고 애쓰던 고교수님을 만났을 즈음 저는 무너져 내리는 것같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경옥이가 학비가 없어 중학진학을 못하게 되자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따내는 신정식 부인

올며 불며 고학을 해서라도 야간학교를 다니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말대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길을 터보겠노라고 달래놓고는 도회지의 친척들을 찾아나섰습니다. 부모된 저로서 딸의 고학할 길을 찾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고 병신스런 것인줄 알면서도 그 원수놈의 가난 때문에 큰 딸은 국민학교, 큰아들 경환이는 중학교 밖에 보내지 못한 데다가 둘째아들 승환이는 공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양자로 보낸 처지에 달리 어떤 뻔죽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을 찾아나선 일도 헛 수고였고 오직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만이 제 가슴을 찢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중 고교수님이 마을 주민들의 영농개선을 위해 1년거치 5년 상환으로 모든 자재를 대여하고 기술자 한분이 시범하우스를 만들어 기술을 지도하는 조건으로 비닐하우스 20동을 희망농가에 설치하도록 주선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들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비닐하우스를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하면 소득이 상당하다는 말은 듣고있던 터였으니까 경환엄마가 무슨 수로 생전해보지도 않던 비닐하우스를 하겠느냐고 마을 사람들이 웃어 버리더군요. 더구나 애 아버지도 우리 힘으로 그걸 해낼수도 없으려니와 가뜩이나 빚을 지고 있는데 실패해서 자재값만 8만여원의 빚을 더 걸머지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고집을 부려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은근히 격정도 되지만 농사일은 뼈에 밴 저였고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데 제가 남들보다 못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더구나 다시는 학비 때문에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울지는 않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시작을 하려니 방법을 몰라서 시범포를 만들고 있는 기술지도원 박선생의 하우스에 가서 일하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 박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아주머니는 하우스 지을 준비는 않고 구경만 하십니까. 준비가 하루늦어지면 소득이 반으로 줄어듭니다”라고 그길로 받아라곤 그것 밖에 없는 9백평짜리

비탈밭을 고르고 퇴비를 있는대로 모두 긁어 하우스 지을 자리를 냈습니다. 이웃에서 기르는 사슴의 똥을 두 리어카나 주워다 넣고 마을 앞에 실어다 놓은 대나무를 끌어다 쫓아 50평짜리 하우스 다섯 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으나 다음 작업부터는 사전준비가 없었기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철사를 돌위에 놓고 도끼로 끊어 적어서 하우스 안에 터널을 만들고 보니 손바닥이 부르르치고 손등은 온통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11월 20일경 시범하우스에서 나누어준 상처와 배추모를 심고나니 그것을 덮어줄 짚으로 만든 거적이 없어서 이불을 내다 덮었습니다. 작은 묘판은 이불로 덮어서 앞가림을 했으나 묘를 하우스 전체에 옮겨 심으면 이를 덮어줄 거적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밤새워 거적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묘를 키워 하우스 전체에 정식하던 12월말 전까지 2백여장의 충분한 거적이 준비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범하우스를 하루에도 몇번씩 드나들며 어떻게 가꾸는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술지도원 박선생이 눈에 띄면 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쫓아가 묻고 상의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가 짧았더라면 바람났다고 할경도트 기술지도원을 따라 다녔어요.

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배워서 실패 없이 하우스를 해보겠다는 일념이었으니까요.

또 틈틈이 다른 사람들의 하우스에 들어가 상처와 배추가 자라는 상태며 하우스 관리 시비정도와 관수상태등을 제것과 비교하여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은 그 원인과 경과를 살펴 제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잘못을 미리 시정하느라 애썼습니다.

다른 곳에서 상처에 비료를 많이 주어 병난 상황을 보고 저의 시비량을 조절했고 밤낮의 심한 기온차이 때문에 생겨난 백납병을 저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낮에 환기를 시켜 기온을 낮추고 밤엔 거적을 충분히 덮어 기온차이를 줄임으로써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낮다고해서 거적을 열어 주지 않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얼린 것을 보고 날씨가 변해도 귀찮은 생각이 들어도 매일아침 거적을 열

고 저녁에는 덮어주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읍니다. 혹독한 추위속에서도 물지게를 진채 밭판에 넘어져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쓰고 발이 얼어 빠지도록 시려워도 하우스속의 상처와 배추판은 얼지도 마르지도 않도록 물을 저날라 관수를 하느라 애썼읍니다. 날이 밝아 있는 동안은 거의 하루 온종일 하우스안에서 살다시피하며 상처와 배추를 아끼 다루듯 어루만졌읍니다. 여자인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과를 보내면서도 다행히 별로 병도 나지않고 무럭무럭 자라는 상처와 배추를 보며 새힘이 생기곤 했어요. 저의 하우스는 비탈진 밭에 만들어져 있어서 열기가 경사진 윗쪽으로부터 가고 아랫쪽에는 냉해서 아랫쪽에 심은 것이 시원치가 많아 몇번 다시 심고 밤에는 거적을 이층으로 덮어주며 추운 날은 화로까지 갖다 놓는등 애태운 일이 있지만요 1월 20일 경에는 탐스럽게 자란 상처와 배추를 시장에 내게 되었습니다. 1 km되는 한길까지 리어카로 실고가 시내버스로 수원까지 가져가서는 장터에서 직접 도회지 주부들에게 소매를 했어요. 행상이랄까 노점이랄까, 뒤 그런거야 전부 터 해오던 터였으니 달리 어려움은 없었어요. 전에는 고작해야 옥수수를 쳐다 팔거나 고추잎을 삶아가져가거나 햇콩가지며 아욱, 파, 들깨 잎 따위를 내다 팔아봐야 힘만 들었지 하루 품파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엔 경우가 달라졌어요. 하루 이고 나가면 최소한 4~5천원은 받았으니까요. 흠고 고단해도 재미가 났어요. 60평에 심은 상처로 약 100,000원을 뽑았어요. 40평에 심은 배추는 제값을 받지 못해 실패였어요. 김장김치가 제맛을 내는 시기라서 그런지 주부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지금 생각하니 차라리 음식점으로 냈으면 나올걸 그랬는가봐요 2월초에는 두번째 상처를 파종했고 1월 10일경에 씨 뿌렸던 오이 도마도를 3월초에 정식할때 그 사이사이에 상처를 심었어요. 60평에 심은 오이와 40평에 심은 도마도 그리고 사이사이에 심은 상처를 길러 5월초부터 상처를 뽑아 3만원 5월말부터 장에 내기 시작한 오이와 6월초부터

따낸 도마도로 14만원을 뽑고 7월말인 지금도 오이는 몇번 더 딸수 있겠어요. 오이가 처음 팔릴때 2~3개에 백원 도마도 1근에 백원씩 상당히 좋은 값을 받았으나 보름쯤 후에는 절반값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하루라도 더 일찍 따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서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하튼 불과 100평에서 예전 900평 전체에서 얻던 수입보다도 몇배의 수입을 올리게 됐으니 진짜 비닐하우스를 못한 것이 한이 되더군요. 오이를 따낸자리에 가을 상처를 도마도를 따낸 자리에는 또다시 도마도를 심기로 하고 묘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하우스를 하면서 고생도 많았고 도마도를 훔쳐 따먹는 장난꾸러기를 지키려고 하우스안에서 10여일을 잠자는 동안 너무 고단한 때문에 도마도 따러 들어왔던 사람이 저를 밟고 튀어나간 뒤에야 가까스로 눈을 비비며 누구나고 소리지른 웃지못할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우스재배에 어느정도 기술도 익혔고 자신도 생겼읍니다. 올해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얻은 수입중 비료값, 농약값, 자재값, 종자값, 을 빼고도 일부 빚을 청산했고 더구나 20여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얻어 먹던 장리쌀을 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올해에 얻은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좀더 기술습득에 힘을기울이고 열심으로 일해서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교야 말겠고 그렇게 하면 큰아들의 소원인 젓소 한마리 사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품찰 교수님의 알선으로 새 서울로타리클럽에서 우리마을에 설치해 준 양곡은행자금으로 산 황소도 부족부족 자라고 있으니 까요.

이상 말씀드린 우리집과 마을의 과학 영농기술 발전은 오로지 새마을 기술봉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1과학자 1마을 기술결연사업의 귀중한 열매입니다. 고교수님의 희생적인 봉사정신과 과학기술지도로 저희 마을 농민들은 더욱더 잘 살아 보자고 오늘도 내일도 피땀을 아끼지 않고 흘리겠습니다.